

# 장성서 무더위 시원하게 날려볼까

상무평화공원 '더위 타파 버스킹'  
썸머나잇 피크닉·뮤직페스타  
폭염 식혀줄 행사·공연 풍성

장성군이 올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장성군은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장성군 삼계면 상무평화공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더위 타파 버스킹'을 연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마술쇼와 하모니카 연주, 요들송, 국악, 밴드 등 거리공연을 펼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상무평화공원 바닥 음악분수도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주말·휴일 오전 10시~저녁 9시, 평일 오후 2시~8시다. 8월부터는 평일에도 운영한다. 오는 19일 오후 6시 황룡정원 야외무대에서 '장성 썸머나잇 피크닉'을 개최한다. 가수 소찬휘의 무대를 비롯해 음악 공연이 열린다. 선착순 1000명에겐 맥주를 1000원에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8월 8-9일에는 상무평화공원에서 '2025 어울림 음악회 썸머뮤직페스타'가 예정돼 있다.



장성군이 오는 8월까지 삼계면 상무평화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더위 타파 버스킹'을 연다.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음악분수. <장성군 제공>

첫날 '미스터트롯3' 우승자 김용빈, 미스터트롯2 출신 강혜연,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 한태현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튿날 '남만고양이'를 부른 가수 체리필터와 밴드 트랜스픽션, 극동아시아타이거즈, 롤링퀴즈 등이 공연한다. 물대포와 무료 물놀이장도 마련한다. 홍길동테마파크 바닥분수도 8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휴일 가능하다. 휴가철인 7월 28일~8월 10일은 평일도 운영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 공간 확보, 수경시설 관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준비하겠다"면서 "올여름도 장성에서 신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나주시 폭염 선제대응...전방위 체계 가동

무더위쉼터·살수차 등 점검회의

나주시가 장기화되는 폭염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현장점검까지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전방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나주시는 최근 윤병태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폭염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17일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점검회의'의 연장선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 특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에서는 무더위쉼터, 그늘막, 살수차 등 폭염 저감시설의 운영 실태와 시설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운영현황 및 가축 폐사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부서별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시는 620개소의 무더위쉼터와 222개소의 그늘막을 운영 중이며 주요 시가지에는 살수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염 대응 물품을 배부하고 쉼터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현장 체감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폭염이 가장 심한 낮 12시부터 5시까지의 농작업 자제 홍보를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수칙 지도와 점검을 병행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폭염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시는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각 분야별로 상호협력하는 대응에 집중해 달라"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수분 섭취와 야외활동 자제 등 폭염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함평군 군민 숙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본격화

중앙투자심사 통과

함평군이 문화 자원 확충을 통한 군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함평군에 따르면 군민 숙원 사업인 '함평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함평군은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건설기술평가, 계약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함평군 문화예술회관은 총사업비 279억원(도비 20억원, 군비 259억원)이 투입되며 함평읍 화양근린공원 내 총면적 2798㎡, 지상 3층 규모로



함평군 문화예술회관 조감도.

건립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398석 규모의 공연장, 전시관, 주민문화센터 등이 조성되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인 함평군수는 "그동안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했던 함평군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평의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화순군, 춘란 재배온실 임대 신청자 모집

화순군이 9월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지역 농업인 소득 증진과 춘란 산업 육성을 위해 '화순춘란 재배 온실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하는 재배 온실은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각각 27.3㎡ 규모로 총 18곳이다.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임대료는 연간 73만원이며 월 운영비 2만원이 따로 부

과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 마감일 기준 화순군 거주자이며 온실 사용 목적은 춘란 재배 관련 활동에 한정된다. 신청은 화순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TF) 사무실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이 2025년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선정을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진군,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 선정

1억원 확보...골목상권 활력 사업

강진군이 전남도 주관의 '2025년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1억원을 확보했다. 강진군은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3000만원에 군에서 부담하는 7000만원을 더해 상인 조직화와 문화행사, 음악이 흐르는 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으로 집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예비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인회 조직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선진지 견학을 통한 상인 역량 강화 ▲거리공연 ▲체험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가족 참여형 축제와 소비 촉진 행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 행정력과 강진군소상공인연합회의 실행력이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특히 서문길 일대에 정기적인 버스킹 공연과 목공, 공예 등 체험형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영수증페이백 이벤트를 통해 유동 인구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상인 조직화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상인 조직이 활성화되면 상권도 살아나고 상인과 군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이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담양 가사문학 랩으로 되살아나다

#### 청소년 페스티벌 성료

가사문학의 본고장 담양에서 청소년이 주인공이 된 이색 랩 경연이 열렸다. 담양군은 지난 5일 제7회 전국 청소년 가사시 랩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국문학 갈래인 '가사(歌辭)'를 청소년의 감각과 랩이라는 현대적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창작의 장을 마련했다. 경연 참가자들은 한국가사문학관 누리집에 소개된 '담양가사 18선' 중 한 작품을 가사로 활용하고, 작사와 작곡은 모두 창작곡으로 구성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2팀) 각 200만원, 우수상(2팀) 각 100만원, 장려상(4팀)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가사가 랩이라는 청소년 친화적 장르를 통해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가사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5년 7월호

2025년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 올여름 휴가 키워드 ————— '마음 치유'

- 일상을 바꾸면 텅 빈 마음에 차오르는 위로
- 한 번쯤 여유롭게, 미술관 투어
- 산티아고를 걷는 사람들

---

### 남도 체험로드

## 역사와 민속

### 알수록 깊어지는 그 바다

---

### 문화 화제 - 호남예술제 70주년

## 호남예술제

사진으로 만나는 2025 호남예술제

호남의 누정시조 2 @ 담양 소재원  
은둔 선비 양산보와 후손들이 가꾸고 지킨 우리나라 최고의 별서원림

### 유형 소도시 기행③

## 신성로마제국과 팝아트 독일 아헨

우리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⑧

### 고흥 남포미술관

## 폐교된 선친의 학교에 예술의 꽃 심은 지 20년

---

### 공간의 재발견④

## 국립광주박물관·광주일보 공동기획

12월 개관 앞둔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

### 예함과 함께하는남도투어⑧

## 드라마·영화 속 그곳으로 전남 로케이션지 시간여행

---

### 공간의 재발견④

## 양곡창고가 복합문화공간 변신

### 담비예술창고